

■ 동국미술인회 도쿄 한국문화원서 창립 10주년 기념전 성료



송근영 씨가 자신의 작품인 '관세음보살입상'을 전시회 참석 내빈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근영 씨·유진환 한국문화원장·이시카미 교수·야이나카 지희장·박현수 회장).

# 숨쉬는듯한 불·보살님 “놀랍네요”

## 전통불교미술 日서 첫 단체전시... 학자들 관심·언론 취재열기 '후끈'

“한국불교미술의 섬세함은 기하 허를 두들 정도다. 특히 정교한 목조 불상은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진귀한 미술품이다” “전통적이면서도 작가의 현대적인 감각이 녹아 있어 보는 즐거움이 크다” “은사미” 배움준에 열광한 일본인들이 이번에는 한국 불교미술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박현수)는 11월 25일 저녁 7시 일본 도쿄(東京) 한국문화원 8층 전시실에서 창립 10주년 ‘동국불교미술인회’ 개막식을 봉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중있는 불교미술인들로 구성된 동국불교미술인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조각, 회화, 단청, 사진, 공예 등 한국 불교 미술의 모든 장르를 일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종합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박현수 회장을 비롯해 김웅섭, 김동환, 송근영, 김광현 씨 등 동국미술인회 회원 20명과 유진환 주일대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장, 이시카미(石上善應) 일본 대정대 명예교수 겸 한국 동국대 석좌교수, 야이나카료음(山中龍雲)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 일본지회장, 무라야즈 히로코(村松ひろ子) 동경화랑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유진환 한국문화원 원장도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일본인들에게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점잖고 단순한데 비해 한국 불화는 다양한 색깔에 화려하고 밝게 표현돼 불보살들이 살아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낀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웅섭 씨의 ‘일광삼존불상’, 송근영 씨의 ‘관세음보살 입상’, 김동환씨의 ‘청동 달마상’, 윤수천씨의 ‘관세음보살상’, 이재순씨의 ‘구도의 길’ 등 조각상과 전연호 씨의 ‘화엄경 변상도’, 이철

와 같이 세밀하게 굵니로 그린 전연호씨의 ‘화엄경 변상도’ 등은 한국 불교미술의 현 주소를 가능케 하는 수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을 꼼꼼하게 둘러본 야이나카 지희장은 “일본 불교미술은 단순히 전통에 대한 보존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번 전시작품 중 ‘수월관음도’와 ‘기룡관음도’ 같은 것들은 전통에 충실하면서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해 인상 깊었다”고 즐거워 하며 작품 앞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관심은 전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뜨거웠다. 일본의 중의일보와 동양경제일보에는 이미 비중있게 기사화 됐으며, 한국계 케이블 TV인 KNTV는 개막식 현장의 모습을 취재해 뉴스시간에 생생히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장을 뒤늦게 방문한 불교미술 수집가인 나카오(40)씨도 김광현 씨의 ‘수월관음불감’을 한동안 들여다보며

“Good, beautiful!”을 연발했다.

나카오 씨는 “불감은 현재 일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불교미술만의 독특한 조각품”이라며 구입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번 전시회는 11월 28일 폐막했다.

글·사진/도쿄=김주일 기자

###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장르 선보여 전통과 현대적 감각 적절한 조화에 매료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 놓았다.

이번 전시 작품을 둘러 본 이시카미(76)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조화됐으며, 회화의 색깔자제도 일본 불교미술은

송씨의 ‘아미타삼존도’ 등 60여점이 선보였다.

특히 천의를 걸친 수월관음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표현한 김의식의 ‘수월관음도’와 아미타삼존상을 정교하게 조각한 김정걸씨의 ‘목조 아미타삼존상 불감’, 랜화

와 같이 세밀하게 굵니로 그린 전연호씨의 ‘화엄경 변상도’ 등은 한국 불교미술의 현 주소를 가능케 하는 수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을 꼼꼼하게 둘러본 야이나카 지희장은 “일본 불교미술은 단순히 전통에 대한 보존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번 전시작품 중 ‘수월관음도’와 ‘기룡관음도’ 같은 것들은 전통에 충실하면서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해 인상 깊었다”고 즐거워 하며 작품 앞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관심은 전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뜨거웠다. 일본의 중의일보와 동양경제일보에는 이미 비중있게 기사화 됐으며, 한국계 케이블 TV인 KNTV는 개막식 현장의 모습을 취재해 뉴스시간에 생생히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장을 뒤늦게 방문한 불교미술 수집가인 나카오(40)씨도 김광현 씨의 ‘수월관음불감’을 한동안 들여다보며



정경용 씨의 '비천상'.



전연호 씨의 '화엄경 변상도'.



가마쿠라시대에 제작된 일본불화 '아미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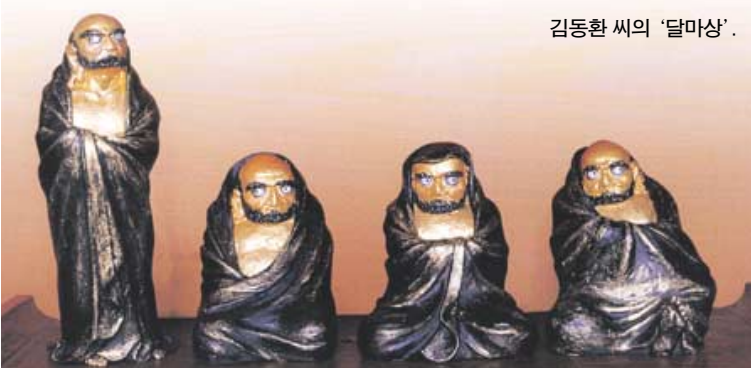
### ▲일본 불교미술은?

일본의 불교미술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6)를 분기점으로 서서히 활기를 얻었다. 이후의 무로마찌 시대나 모모야마 시대(14세기)부터는 보다 세속적인 일반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불교건축이나 조각도 쇠퇴했다. 겨우 선종 화만이 수묵화와 함께 발전하게 됐지만 아스카 이래 가마쿠라 시대까지의 활발했던 불교 미술은 다시는 부흥되지 못했다. 14세기를 기점으로 불교적 정열과 창의력을

### 에도시대 이후 쇠퇴 가정에선 장식용으로

모두 고갈시킨 것 같다. 더욱이 시민계급이 성장하는 에도시대부터는 일반건축이나 회화의 비약적인 발전에 반비례해 불교 미술은 쇠퇴해 갔다.

이시카미 대정대 명예 교수는 “일본 사찰에서는 불교조각이나 회화 등 불교 미술품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탕화 같은 것은 거의 모시질 않지요. 오히려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일본 불교 미술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또한 이시카미 교수는 불상이나 조각품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훨씬 더 정교하며 일본의 불화나 탕화는 수묵화 계열의 단조로운 채색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김동환 씨의 '달마상'.

### 인터뷰 ▲동국불교미술인회 박현수 회장

“이번 전시회는 한국불교미술의 다양한 장르인 회화 조각 공예 단청 등을 망라한 것으로 이번 종합적인 전시는 한국불교미술계에서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종합전을 개최한 박현수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장(오른쪽 사진)은 개최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 “다양한 우리 불교미술 진수 보여준 계기”

“개인전 형식으로 한국 불교 미술을 해외에 알리는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르에 국한되다보니 불교미술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폭 넓게 우리 불교미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다.” 이런 점에서 박 회장은 이번 전시가 한국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물론 한일 양국간의 불교미술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불교미술단체와 정기 교류전을 추진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일본에는 불교미술단체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박 회장은 앞으로 직접 관객앞에서 시연하는 퍼포먼스 형식의 순회전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팔모접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 팔모조립등

보관상태

####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 종 등

####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